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봉지점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봉지점(지점장 김광식)은 지난 9월 7일 중추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

려운 이웃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복지관 3곳과 저소득 가구 10세대에 후원금 550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올 상반기에도 총 1,15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한 바 있다.

면목본동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2일 홍상봉(칠성무역 대표) 주민자치위원회는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총 1,400만원 상당의 가족지갑 725개를 기증하였고, 같은 날 한상덕(웃바 대표) 씨도 의류 1,430점을 기증하였다.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 200세대에 전달하였고 남은 지갑과 의류는 기부물품을 팔아 이웃을 돕는 녹색나눔터에 전달되었다.



면목3·8동 작은 사랑 나눔으로 훈훈한 추석명절

지난 9월 9일 면목3·8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위원장 도옥희)와 생명중앙교회(목사 이길용)는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면목3·8동 주민센터에 각각 쌀 20포와 80포를 기탁했다.

물품은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었다.



상봉1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와 함께 하는 추석

상봉1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회장 박영걸)는 지난 9월 8일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 8명에게 김, 포도씨유를 전달하였다.

해마다 명절이면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직접 방문하여 성품을 전달하고 있는 상봉1동 청소년아동



복지위원회는 14년째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상봉2동 지역사회사랑봉사단 '이웃과 함께 하는 추석'

상봉2동 지역사회사랑봉사단은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이웃돕기 행사를 가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봉지점(지점장 김광식)은 홀몸노인 10세대에 전통시장상품권 200만원을, GS건설(대표 허명수)은 홀몸노인 10세대에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상봉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석진)는 기초생활수급자 5세대에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그 밖에도 지역내 독지가들의 후원금품 이어졌다.

망우본동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 나누기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망우본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양미예)는 주식회사 GKL의 후원을 받아 김치담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높은 물가에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은 늦은 밤까지 배추를 절이고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김치속을 만들었다.

땀과 정성으로 담긴 김치는 관내 저소득 가구 100세대에게 전달되어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망우3동 청소년 환경대청결 운동 실시

망우3동 재향군인회(회장 최영우)는 지난 8월 21일 재향군인회 회원, 각 직능단체 회원, 중·고등학생 100여 명과 함께 지역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매년 깨끗한 마을가꾸기에 힘쓰고 있는 망우3동 재향군인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신내2동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한가위

생일을 맞은 홀몸노인에게 선물과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는 신내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노철)는 중추절을 맞아 홀몸노인 39세대에 송편과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신내10단지아파트 통장단(9명)은 차상위계층 25세대에게 라면 1상자씩을 전달하였다.

또한 신내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한상렬 씨는 지난 8월부터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백미 100kg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백미 100kg 지원을 약속하였다.



중랑구자원봉사센터의 우수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취재 김준우



미용봉사단! 사랑의 가위소리가 울려 퍼지다~

가는 여름이 몹시나 아쉬운지 끝자락을 잡고 있는 무더운 날씨!!

오늘은 남아 있는 무더위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은행길경로당(면목본동 소재)을 찾아가 시원한 가위소리를 만나본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이미용 도구를 챙기고 어김없이 은행길경로당을 찾는

25명의 미용견습생으로 구성된 미용봉사단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복지관에서 미용봉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복지관은 물론 경로당, 병원 등 무려 17개 시설에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하루종일 많은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다 보니 봉사단원들의 몸은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말쑥하게 깎아진 머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라고 한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미용봉사단!

오늘도 미용봉사단은 사랑의 가위손으로 어르신들의 머리와 마음을 아름답게 손질한다.

중랑구미용봉사단(단장 이미희)! 한달을 꼬박 기다려온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복새통을 이루며 미용봉사단의 손길을 기다린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